

몬테레이한인교회 마을 모임 (2026년 8월 9일)

1. 환영(Welcome): 서로 인사하기
2. 경배와 찬양(Worship): 우리에게겐 소원이 하나 있네
3. 말씀 리뷰(Word): 롯기 강해(1) - 빵집에 빵이 없을 때 / 롯 1:1~6

롯기는 흉년 때문에 베들레헬을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온 곳이 바로 베들레헬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베들레헬은 '떡집', 곧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이 있어야 할 빵집에 빵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 시대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베들레헬도 모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가정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상처와 실망을 안고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베들레헬을 떠난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정은 더 큰 풍요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더 큰 인생의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전환점은 롯기 1장 6절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헬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원인은 베들레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빵 없는 빵집이 다시 풍성한 베들레헬이 되었습니다. 결국 능력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교회가 진정한 베들레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는 생명의 떡이 있고, 갈급한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주님,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때 예배는 살아나고, 성도는 변화되며, 상처를 안고 떠났던 영혼들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호주의 대형 목장은 울타리보다 좋은 우물을 통해 가축을 모은다고 합니다. 좋은 물이 있는 곳에는 결국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붙잡기 위한 울타리만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있는 우물,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고, 목마른 영혼들도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빵 없는 베들레헬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풍성한 베들레헬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와 가정,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질문에 답해봅시다.

1.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빵 없는 빵집’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더 큰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돌아가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3. 교회의 능력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 영적인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 신앙공동체에는 울타리도 필요하지만 갈급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우물이 더욱 필요합니다.

-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 ‘우물’을 만드는 사람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5.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텅 빈 베들레헴이 다시 풍성한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 최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채워주셨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떠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깨달음이 삶의 습관이 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4. ‘감사’&‘기도’ 제목 나누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있네

(원제:우릴 사용하소서)

김영표



교회로향한-우리마 음 희생



과포기-와 가난과고 -난-하물며죽음조-차-우릴 막을수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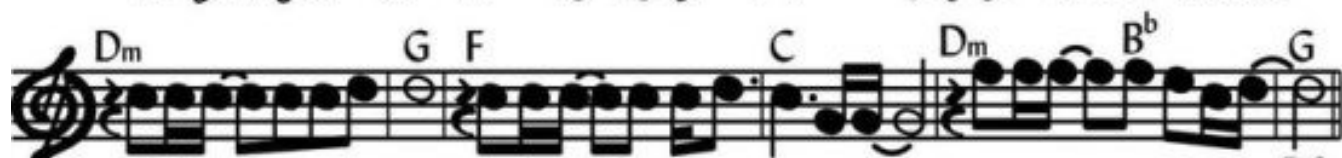
과포기-와 가난과고 -난-하물며죽음조-차-우릴 막을수없네



우리 교회는-이땅의-희망 교 회를 교회되-게-예배 예배되-게-
부흥의-날-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서- 건 정한 -서- 성경안-에예배 하리라-



자유의-마음으 로 사랑으-로사역 하리라- 교회는-생명이니 -